



tvN 새 주말드라마 '무법변호사' 제작발표회에서 출연 배우 및 감독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기, 서예지, 김진민 감독, 이해영, 최민수.

김승우&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
“절친 꿀케미 보여드릴게요”



14일부터 매일 오후 4시 KBS쿨FM

“장항준 영화감독과 함께라면 청취자들과 재밌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배우 김승우(49·왼쪽)가 라디오 DJ에 처음 도전하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오는 14일부터 매일 오후 4시 방송할 KBS쿨FM(89.1MHz) ‘김승우&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를 진행한다. ‘미스터 라디오’는 2007년 배우 차태현과 안재욱 진행으로 인기를 얻었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김승우는 8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전부터 막연하게 ‘라디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란 생각을 했다”며 “장항준 영화감독과는 오랫동안 재밌는 시간을 함께 보는 친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과거 ‘라이터를 켜라’ 등 영화로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장항준 감독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김승우 씨와 같이 진행하게 됐다. 김승우 씨를 믿고 하기로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준호, 어버이날 독거노인 식사대접

7년째 선행 “마음 따뜻해져요”



배우 정준호(48·사진)가 7년째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대접을 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정준호는 8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뷔페식당에 독거노인 약 300명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했다. 정준호의 어버이날 선행은 올해로 7년째다. 정준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왔다”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7년째 하는 행사인데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호의 가장 최근작은 2016년 영화 ‘인전상륙작전’이다. /연합뉴스

이준기 “대선배들 기 받아 멋진 호흡 보여줄 것”

“보통의 작품이라면 김진민 PD님께서 손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는 12일 첫 방송 하는 tvN 주말극 ‘무법변호사’에서 만난 배우 이준기(36)와 서예지(28)가 연출자인 김진민 PD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였다. ‘무법변호사’는 김진민 PD와 이준기가 2007년 MBC TV 인기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이후 11년 만에 만난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준기는 8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PD님께서 오랜만에 절 찾아주시니 감사했고 기대됐다”며 “최근에 좀 있는 매너리즘이 PD님을 만나면 깨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준기는 이번에 법과 주먹을 겸비한 조폭(조직폭력배) 출신 변호사 봉상필을 연기한다. 그는 함께하는 선배 배우들에게 대해 “서예지 씨는 어떻게 먼저 다가야 할까 고민했는데 실제로 밝은 성격이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 최민수 선배님은 제가 정형화한 사고로 연기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서예지는 들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하는 ‘꿀꿀 변호사’ 하재이 역을 맡아 이준기와 호흡한다. 그는 “최민수, 이해영, 이준기 선배님이 모두 카리스마로 유명한 분들이지만 기에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를 받아서 열심히 호흡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작 ‘구해줘’가 우울한 작품이어서 빨리 벗어날 캐릭터를 찾다가 하재이라면 가능하겠다 싶었다”며 “여배우들도 액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좋다”고 덧붙였다.

tvN 주말극 ‘무법변호사’ 12일 첫 방 11년만에 ‘개늑시’ 김진민 PD와 재회 신구 선악 대립·배우들 카리스마 기대

‘무법변호사’는 이준기와 서예지 외에 최민수, 이해영까지 신구(新舊)가 잘 조화된 호화 캐스팅도 화제다. 정준 배우들은 선(善)을, 중년 배우들은 악(惡)을 대변한다. 이처럼 선과 악의 명확한 대립, ‘도장깨기’를 하듯 악한 캐릭터들을 만나며 더 강해져 가는 봉상필이 관전 포인트다. 정치적 압무와 각종 비리, 부패로 얼룩진 가상의 도시 ‘기상’을 배경으로 사건사고들이 매회 휘몰아칠 예정이다. 여기에 배우들의 맨몸 액션이 더해진다. 김진민 PD는 “연출을 하면서 늘 꿈꿔오던 것이 이뤄진, 완벽한 캐스팅”이라며 “이 드라마는 ‘복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 간 얽힌 관계 변화와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 등도 많다”고 했다. ‘개와 늑대의 시간’과 비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당 시에는 제 에너지를 밀어붙인 작품이었다면, 이번에는 그저 대본이 재밌었다”며 “그동안에는 무겁고 스타일리시한 작품을 연출했다면, 이번에는 배우들이 워낙 스타일리시하니 그저 재밌고 편안하게 연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랜만에 만난 이준기에 대해 “과거보다 유연해졌고, 현장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은 큰 스타가 된 지금

도 여전하다”고 칭찬했다. 한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민수는 “현장 분위기는 너무 재밌다. 연기보다 서로 놀러먹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농담으로 입을 연 뒤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 속에서 함께하는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래 제가 이 역할이 아니었어. 그런데 김진민 PD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서 협박했대. 그래서 출연합니다.” 그는 “(장르극인데) 답배도 흥기도 욕도 안 되니 교양 TV, 디즈니 만화 같이 솔직히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고 특유의 솔직한 화법을 과시하면서도 “누가 악인인지 선인인지 헷갈리게 하는 색깔로 그려진 작품이라 시청자들이 선과 악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했다. 호평받은 tvN ‘마더’에 이어 금방 컴백한 이해영은 이번이 고결한 성녀 열풍 속에 탐욕을 감춘 기성지배 ‘향판’ 차문숙을 연기한다. 그는 “우선 김진민 PD가 ‘차문숙은 꼭 이해영이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해 출연하게 됐다”며 “또 ‘마더’에서 제가 한 차영신 역할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 시범시스를 보는데 차문숙의 강인함이 제게 힘을 줬다. 차영신을 연기할 때 끝난만큼 어떻게 헤어나올지 고민했었다”고 출연 배경을 밝혔다. 함께 악의 축을 담당할 최민수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역시 놀라운 배우”라며 “최민수의 호흡은 정말 남다르다”고 했다. 오는 12일 밤 9시 첫 방송.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전생애 맨수들(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민의 일꾼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생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 (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라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대상선정 연주회	00 속보이든 TV 인사이드(재)	3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30 판다랑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방송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타오르지마 버스터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전문 남도에 살았어라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 7 35 신 노년시대 4부작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맨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0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살피는 남자들	55 하하랜드 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슈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로맨스 패키지 1~2부
12	30 인간극장 스페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디큐	40 스포츠 다이아리 5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지중해 맛기행 -3부 스페인 맛에 빠지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띠띠뽀 뽀로로 09:00 뽀롱뽀롱 09:15 엄마 까투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들깨 소라국과 오이교주 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초대석 13:00 지식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14:30 너티나츠 15:00 호기심 소녀 드트. 15:15 파파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레전드하러 삼국진 16:15 주사위 오징어 큐비주 16:30 띠띠뽀 뽀로로(재) 16:45 뽀롱뽀롱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재) 17:30 두다다쿵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목 보너스1~4 19:00 몬카트(재)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재) 19:30 EBS 뉴스 19:50 아빠타	20:40 세계테마기행 <오만 가지 매력 오만 3부 팔라츠의 축복> 21:30 한국기행 <시골식당 3부 그녀들의 자연방성> 21:50 EBS 다크프라이 <어머니의 강, 매공 3부 -민을 일태한 강> 22:45 극한직업 <캄보디아 야생 꿀을 찾아라>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원종현 교수 1) 24:45 지식채널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9일 (음 3월 24일 辛丑)
子	36년생 출기찬 노력이 성공을 앞당길 것이다. 48년생 기회가 밝게 빛나리라. 60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이 훨씬 낫다. 72년생 제대로 파악해야 실수가 없으리라. 84년생 황당한 일 에 직면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4, 48	42년생 달라지겠다. 54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다러도 아무 소용이 없다. 66년생 지나치다면 위험한 행국을 자초할 수도 있 느니라. 78년생 물이 깊은 곳이라야만 큰 고기가 모이는 법이다. 90 년생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52, 79
丑	37년생 기존 방식대로 이행하라. 49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61년생 전혀 다른 성국이나라. 73년생 소모적이라면 과감하게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살펴본다면 문제점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5, 76	43년생 실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옳아이다. 55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67년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 이 반드시 필요하다. 79년생 대상자는 반드시 내부에 있느니라. 91 년생 뜻밖의 행재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8, 92
寅	38년생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다. 50년생 원칙대로 해야만 후회기 없다. 62년생 뒤늦게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 74년생 화젯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86년생 아직 안 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70, 65	44년생 누워서 침 뱉기에 비유할 만하다. 56년생 차분한 마음 자 세와 포용력이 요청 된다. 68년생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 잡아라. 80년생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92년생 상응하는 조건 에 부합한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6, 29
卯	39년생 보류하다가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다. 51년생 하루가 다 르게 변하리라. 63년생 금지구역이 상실될 수도 있다. 75년생 돌 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87년생 놓치지 말 고 세심하게 챙길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7, 17	45년생 기쁨은 한 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57년생 근본 원인부터 찾아내야겠다. 69년생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 해야겠다. 81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3년생 염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 행운의 숫자 : 36, 08
辰	40년생 통념과 상식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52년생 오해가 생기 지 않도록 하자. 64년생 반복 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 76년생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두어야. 88년생 속 시원하게 해결되 는 후련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52	34년생 변수가 생겨서 곤혹스럽겠다. 46년생 미진한 부분을 손질 한다면 매끄러워지겠다. 58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망해 볼 필요 가 있다. 70년생 해묵은 정점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될 것이니라. 82 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행운의 숫자 : 41, 62
巳	41년생 단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3년생 진을 정비 해야겠다. 65년생 전화위복이요, 새중기마에 비유할 만하다. 77년 생 스트레스 해소를 잘 해 나가자. 89년생 반드시 맑은 정신에서 행해야만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82	35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초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47년생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59년생 주인공이 된다. 71 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83년생 전체를 종합적 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82,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